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술관교육 방향 연구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I. 서론

II. 미술관교육과 공공성에 대한 이론과 담론 고찰

1. 교육 공공성의 개념과 조건
2. 확장된 미술관교육과 공공성

III.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사례

1. 장애인,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미술관 구석구석>
3.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확보

IV. 결론 및 제언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술관교육 방향 연구

I. 서론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미술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굳건히 자리 매김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핵심가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공동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점차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되며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점을 넘어서서 문화기본권²⁾과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으로서 미술관교육은 다양한 실천과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미술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사회적 의제와 흐름을 반영하면

1)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2018-2020)』(2018), 참조.

2) 문화기본권은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제시한다.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는 국민의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법제처, <http://www.law.go.kr/> (검색일 2018.11.8.).

미술관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의 공공성 조건을 다시금 살펴보고 변화된 박물관학(museology)의 흐름 속에서 미술관 기능과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미술관교육 사업으로는 문화소외계층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 사업은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수년간 지속해온 교육사업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활성화 방안과 박물관·미술관의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변화된 박물관학 흐름 속에서 미술관의 기능과 미술관교육 확장 관점에서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시류를 반영한 논의와 연구는 부족하다.

이점을 고려하여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미술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며 분석 사례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7년 개편과정을 거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변모하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며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II. 미술관교육과 공공성에 대한 이론과 담론 고찰

1. 교육 공공성의 개념과 조건

공공성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뜻한다.³⁾ 공공성 개념과 관련해서는 공공, 공공재, 공공부문, 공적영역, 공론영역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공공’(the public)이라는 개념은 접두어로 다양한 대상, 주체, 또는 영역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공익, 여론, 공공재, 공공보건, 공교육, 공적인 문제들, 공공부문 등이 그 예이다(안병영 외, 2007). 공공의 어원은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숙성(maturity)을 의미하는 반면, ‘사적’(private)은 부족 혹은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으로

3)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2018.11.11.)

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박탈’(to deprive)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공의 의미는 공동선, 현저성, 사생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임의경, 2003).⁴⁾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닌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1990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수년간 비단 교육 분야 외에도 복지, 의료 등 공적 영역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⁵⁾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라는 제도(또는 행위, 재화 등)의 성격을 가리킬 수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요구되는 규범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이 맥락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이종태, 2006)⁶⁾

평생교육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은 합의된 내용이나 한가지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우 다차원적인 특징을 지니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열려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이란 매우 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 개념 자체로 사실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규범적인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는 다양해 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이경아 외, 2007)⁷⁾ 그리고 평생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있어 공공성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교육 공공성은 그것과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익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교육 공공성의 실현은 교육의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생교육 공공성 또한 그것의 목적으로 공익을 내재하고 있다 함은 평생교육의 제도화 또는 지원체계 구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⁸⁾

또한 김종태(2006)는 서덕희(2001)가 기존 교육의 공공성 논의의 맥락에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의 ‘교육의 본질로서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공통 교육과정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차이와 자율, 평

4) 이경아 외, 『평생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 평생교육 협력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7), pp.16-17. 재인용.

5) 이종태,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연구소』, Vol. 33. No. 3. pp.4-11(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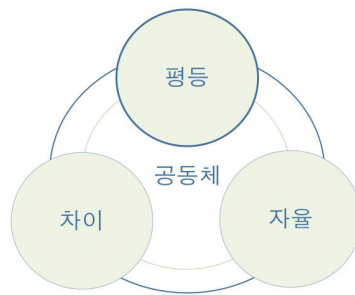
6) 이종태, 앞의 논문(2006), p.5.

7) 이경아 외, 앞의 논문(2007), p.26.

8) 이경아 외, 앞의 논문(2006), p.27.

등'이 중요하다는 논의에 동의한다. 그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접근 기회가 공평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과도하게 편향되지 않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⁹⁾

이경아(2007) 또한 김종태(2006), 서덕희(2001)의 논의에 동의하며 공공성의 조건이자 평생교육 공공성의 조건으로 평등, 차이, 자율을 다시금 강조한다. 공공성이 만인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평등이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그 기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에 있어서 차이는 공공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 것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공통된 교육내용이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차이가 인정되어 자율적으로 학습과 교육에 임할 수 있을 때 교육 공공성은 확보된다는 것이다. 도1과 같이 교육 공공성의 조건으로 평등, 차이, 자율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평등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¹⁰⁾



도 1. 교육 공공성 조건

출처: 서덕희(2001), 김종태(2006), 이경아(2007)가 제시한 교육 공공성 조건 재구성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분야에서 담론화된 논의이지만 교육 공공성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된 공동체 속에서의 평등, 차이, 자율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짚어볼 만한 부분이다. 그 중 평등 실현이야말로 문화기본권으로서 미술관 교육의 사회적 책무이다. 문화소외계층 사업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과제로서 미술관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 김종태, 앞의 논문(2006), p.23, 재인용.

10) 이경아 외, 앞의 논문(2006) p.29.

2. 확장된 미술관교육과 공공성

미술관은 공공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과 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공공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다. 미술관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6년 4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르떼365의 전문가 좌담회에 참여한 카톨릭대학교 철학과 신승환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교육을 되돌아보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 논의의 핵심은 공공성이 아닐까. 정책 초기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장소에 내놓은 공공예술이나 일반사람들이 가꾸는 조건일 때 공공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 공공(公共)에서 앞의 ‘공(公)’은 공익, 공정 등에서의 쓰임과 같다. 그러나 뒤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공(共)’과 앞에 있는 ‘공(公)’이 붙으면 공평, 공익, 공정 등 제 3의 의미가 된다.”¹¹⁾고 하였다. 또한 함께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윤현옥은 “영어의 퍼블릭(public)을 공공(公共)으로 번역하는데 공동체(共)보다 공익(公)만 너무 강조되어 왔다. ‘공(共)’은 함께, 나눔의 의미이다. 개인을 타자화 하는 공공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공이다. 그동안 퍼블릭에 중점이 있던 것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도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Bay Press』(1994)의 저자 수진 레이시 Suzanne Lacy는 “공공성의 목표는 미술을 보다 ‘새롭고 다양한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으로 미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미술 작품을 다루고 수집, 연구하고 교육적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매개하는 공공의 장소인 미술관의 책무와도 연결된다. 또한 이는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하는-로서의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성과는 공공성의 실천의 정도로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이는 미술관과 공공성, 미술관교육의 개념적 함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18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수립 토론회>에서도 주요 방향으로 공공성 강

11) 신승환, 「다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마주할 때-좌담,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변화와 전망-2016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1차 사전 좌담회」, 『아르떼 36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르떼365 <http://www.art365.kr/?p=50746> (검색일 2018.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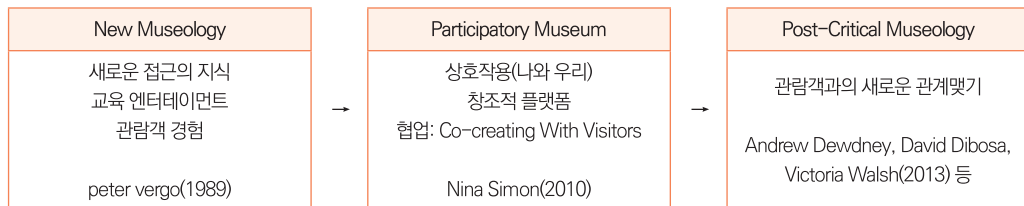
12) 조장은,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공공성 실천에 대한 연구-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 국립중앙박물관(2017), p.113.

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우선 지원과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³⁾

그리고 박물관학 변화 흐름 속에서 미술관 기능과 미술관교육의 확장된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공성 실현을 강조하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백령(2017)은 new museology에서 participatory museum, post-critical museology로 변모하는 박물관학 개념을 제시하면서 변화한 미술관의 기능과 맞물려 미술관교육이 미술관 운영 철학과 전략 측면에서 미술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1세기 미술관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핵심가치로 전문성(speciality), 수월성(excellence), 접근성(accessibility), 리더십(leadership), 협업(collaboration)과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5가지를 제시한다.¹⁴⁾ 제시된 핵심가치 중에서 접근성과 지역공동체는 견고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자 토대이다.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접근권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접근성과 다양한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담고 있는 지역 공동체는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실현의 토대이다. 이를 토대로 백령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교육 체계화를 위한 중점 방안으로서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역할 확대와 교육의 인식 제고를 위한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첫 번째 추진과제¹⁵⁾로 제시했다.

표 1. 박물관학(Museology) 변화 속의 미술관 기능



출처: 백령(201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체계화 연구』, p.19. 재구성

표1과 같이 미술관 관람 혹은 교육 참여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으며 오브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을 보느냐 보다는 누가, 왜 혹은 어떻게 미술품과 만나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람객을 생애 주기적으로 구분하여

13) 김혜인 외,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 및 이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수립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p.33.

14) 백령 외, 앞의 논문(2017), pp.18-19. 참조.

15) 백령은 앞의 논문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체계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공공성 강화 ②둘째 접근성 확보 ③ 리더십 확대 ④수월성과 내실화 ⑤지역성 강화와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을 제공하기보다 미술관 혹은 미술과의 경험, 삶과 특정 상황 속에서 미술, 시각 문화와 만나는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미술과의 조우, 해석, 이해, 경험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어로 재등장 하고 있다.¹⁶⁾

2016년 영국 미들즈브러현대미술관의 알리스테어 허든슨 관장은 “변화하는 미술관: 새로운 관계들”을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창작자로서의 관람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시, 교육, 지역참여 활동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술관의 사용자인 지역주민들이 예술 생산의 주체가 되는 ‘뮤지엄 3.0’의 개념을 소개했다. 훌륭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뮤지엄 1.0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2.0이다. 그리고 3.0은 이미 마련된 구조에 참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 기반(usership)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공동체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통해 미술관의 공공성 실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변화된 박물관학의 흐름 속에서 미술관교육은 새로운 경험으로서의 접근으로 확장하며 그 속에서 미술관교육을 통한 공공성 실현의 방향성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III.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사례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2017년에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소외계층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문화나눔¹⁸⁾ 사업을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술관교육에 사회적 의제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비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속 확대되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통한 방향성 논의를 거친 이유는 경제적 소외계층사업에서 문화소외계층으로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한정된 교육대상, 운영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16) 백령 외, 앞의 논문(2017), p.17.

17) 권민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트365 <http://www.art365.kr/?p=50746> (검색일 2018.11.15.), 참조

18) 국립현대미술관의 문화소외계층 대상 교육사업은 1990년부터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미술관교육 사업이 운영되었다. 2005년부터 다양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나눔>이라는 사업명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범주로는 장애인, 문화다양성, 찾아가는 미술관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참조> (검색일 2018.11.8.).

이는 나눔의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기본권의 입장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미술문화,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 미술관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사업에서 발생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그동안 소외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소외계층 사업은 목적과 추진방향에 있어서 교육 및 평생교육 공공성의 조건으로 제시된 평등, 차이, 자율의 핵심 의미를 가장 깊게 내포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서 배제된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¹⁹⁾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범위와 분류는 매우 다양한데 대체적으로는 신체적, 물리적, 경제적, 인지적, 심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 문화기본권을 통해 살펴본 문화소외계층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권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뜻한다. 반면 영국문화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는 2011년 수행된 예술관객 연구에서 문화향유 정도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자를 문화애호계층(highly engaged), 문화향유계층(some engagement), 문화소외계층(not currently engaged)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문화소외계층은 원인에 따라 1)여가시간이 부족한 그룹 2)노년층 및 신체적 여건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그룹 3)경험부재로 문화향유가 낮은 그룹 4)제한된 수단과 경제적 여건에 놓인 그룹으로 구분했다.²⁰⁾ 영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문화소외계층 분류기준은 문화소외 원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교육 공공성 조건을 반영하고 문화향유 정도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분류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추진방향과 사업분류를 살펴보면 도2, 표2와 같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미술관이 되고, 미술관 내에서도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의미의 미술관교육을 추구하며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은 교육 및 평생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중요한 조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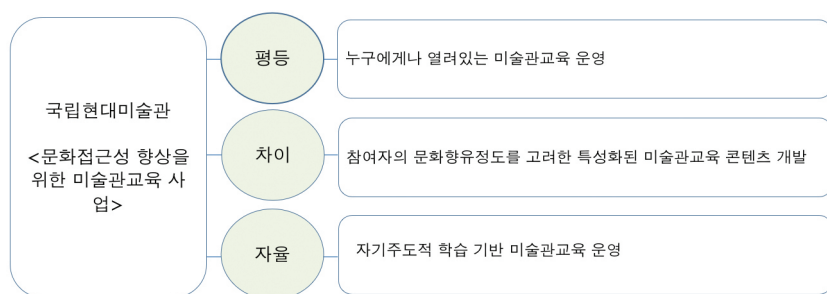
19) 홍해지(2017), 앞의 논문, 참조.

20) 홍해지(2017), 앞의 논문, 재인용.

『Arts audiences:insight』, Arts Council England(2011), p.6, 참조

https://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arts_audience_insight_2011.pdf(검색일 2018.11.15.)

제시한 평등, 차이, 자율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가치는 ‘평등’일 것이다. 평등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미술관교육을 뜻한다. 차이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문화향유정도에 따라 참여자별로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미술관교육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술관교육의 방향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기존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장애인 가족 교육,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 교육 공공성 기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추진방향

표 2.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내용

문화향유정도	대상	세부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노년층 및 신체적 여건으로 문화향유에 제한이 있는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가족 • 치매환자와 가족 	어떤 감각	미술관 속 몸짓	장애아동·청소년 학급단체 대상 현대미술·무용 연계 미술관교육프로그램	과천
			감각여행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현대미술 작가연계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서울
			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치매환자 가족 대상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	과천
			시니어 생생활활		서울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	장애·비장애 청소년, 성인 대상 모두의 미술관을 위한 장애예술가 워크숍	서울
			미술관을 듣다	장애아동·청소년 단체 대상 과천관 소장품 감상 온라인 사전 교육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문화향유정도	대상	세부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제한된 수단과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향유에 제한이 있는 그룹 - 경험부재로 문화향유가 낮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다문화 관련 그룹 • 이주민을 포함한 일반인 • 초·중·고 학생 	어떤 시선	어떤시선 단기과정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우리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서울
			어떤시선 중기과정	동시대 예술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현대미술 작가연계 워크숍	서울
			여름방학 교육 〈상상더하기: 미술관, 식물 관찰기〉	현대미술과 식물을 주제로 전연령, 전계층을 대상으로 모두가 문화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워크숍	서울
			여름방학 교육 〈상상더하기: 미술관, 식물 관찰기〉 작가투어	작가와 함께 미술관 속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찾고 현대미술과 문화다양성의 가치 공유하는 워크숍	서울
경험부재로 문화향유가 낮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 탈북청소년 	어떤 시작	미술관 구석구석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대상 미술관 전시·공간 탐색 프로그램	서울
			느린서터	가출, 자립, 탈학교 청소년 대상 작가연계 사진 워크숍	
			기관 담당자 교육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매개자 대상 미술관 및 현대미술 관련 사전 교육	

1. 장애인,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

1) 장애예술가와 함께한 교육프로그램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

장애인,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은 노년층 및 신체적 여건의 제약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 교육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중심으로 특수학급 대상 교육, 소장품과 야외조각공원 등 미술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2017년부터 서울관 신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장애·비장애인 통합교육, 장애예술가 등 교육참여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미술관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장애인 가족, 장애예술가 등과 함께하는 공간탐색 워크숍을 개발하고 미술문화 소외장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누리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예술가와 함께하는 공간탐색 워크숍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협력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7년 11월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사전 워크숍, 공간탐색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되었다. 총 2회에 걸쳐, 62명의 장애예술가, 장애·비장애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사

람들이 협동하여 ‘모두의 미술관’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다.

장애예술가와 조를 구성하여 사전워크숍, 공간 탐색 워크숍 진행, 결과 공유를 위한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장애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바라보는 미술관의 경험을 나누는 교육활동으로 학습자와 참여자가 있는 교육이 아닌, 장애예술가가 바라본 미술관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여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을 그려본 것이다. 실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고객지원개발팀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이처럼 본 사업은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이자 스스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장애인 교육이다. 평생교육으로서 미술관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이다.

표 3.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 교육 개요

회차	구성	교육내용	교육시간	장소
1회차	사전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을 위한 사전워크숍 ● 프로그램 소개 및 미술관 공간 탐색 방법 설명 ● 멘토별 조구성하기, 조별 소개하기 ● 미술관 공간탐색 전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한 의견 모으기 ● 조별로 가상의 관람객을 설정하고 ‘관람객 경험 시나리오’ 설계하기 	120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2회차	공간탐색 워크숍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시실, 교육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상상하는 ‘모두의 미술관’에 대한 생각 모으기 ● 조별 공간탐색 방법 구상하기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가와 함께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공간탐색’ - 장애예술가, 장애비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동하여 조별로 국립현대미술관 공간 탐색하기 ● 우리가 바라는 미술관에 대한 생각 기록하기 	60	
3회차	평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탐색 과정 및 결과물 자료집 제작·배포 - 조별 발표내용, 멘토 결과보고서 수록 ● 결과 공유 회의 결과를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부서와 공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프로그램 〈일상예찬, 생생활동〉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교육은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과 보호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자연 속에 자리한 과천관의 야외조각공원을 산책하며 미술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정서적, 사회적 소통 능력과 인지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감상교육 및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인 가족, 보호자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

도록 통합적 교육 모델을 지향한다.²¹⁾ 2015년부터 대한치매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주최로 추진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과천관에 이어 2018년부터 서울관으로 운영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치매’라는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또는 반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시니어를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 서울관에서 운영된 <일상예찬-시니어 생생활활>교육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최정화-꽃, 숲>전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작품 감상과 함께 기억의 장소, 기억의 꽃, 숲,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생활활을 주제로 3회차시로 운영되었다. 최정화 작품의 소재인 소쿠리와 플라스크 그릇, 사진, 녹음기 등을 담아 치매환자와 가족의 기억의 꽃·숲을 꾸미고, 일상을 회상하며 함께 온 가족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이다.

표 4. 2018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일상예찬-시니어 생생활활> 개요

회차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장소
1회차	<전시를 만나다> 기억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물건이 조화를 이루고 침묵과 기억의 장소로 탈바꿈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최정화-꽃, 숲> 전시 관람 전 연계 작품 감상 • <높은 꽃> 작품의 소재인 '사물'들을 주제로 한 이야기 나누기 • 작품 감상 경험을 기록하고 생각 나누기 	120분	5전시실
2회차	<작가를 만나다> 기억의 꽃,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들레> 작품 연계 최정화 작가 토크-기억의 꽃, 숲 • 경복궁마당, 종친부 등 미술관 다양한 공간에서 가족과 사진찍고 추억 만들기 • 소쿠리에 사진, 녹음기 등을 담아 기억의 꽃 꾸미기 • 녹음기에 담은 글 받아쓰기 	120분	로비/ 미술관마당/ 종친부 마당
3회차	<일상이 예술이 되다-생생활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활활 티파티 • 참여자들이 꾸민 기억의 꽃과 캘리그래피 전시 • 차를 마시며 참여자 발표/낭독 (소감/발표회) • 미술관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하기 	120분	가족라운지 경복궁마당



도 3. 2018년 서울관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 <일상예찬-시니어 생생활활> 진행사진

21) 황지영·홍해지,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미술관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방향」, 『2017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대한치매학회(2017), p.30.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미술관 구석구석>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소외계층 중 경험부재로 문화향유가 낮은 집단에 속한다. 학령기 연령을 위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은 공교육 시스템인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교육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주목하고 대안학교, 꿈드림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기존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일성있게 적용하되, 참여자의 90% 이상이 미술관 첫 방문자이므로 미술관의 전시, 공간 등 뮤지엄리터러시 관점의 미술관 이해에 중점을 둔, 대상에 특화된 교육을 설계하여 그룹별로 주어진 미션을 스스로 찾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이는 교육 공공성의 조건 중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는 미술관이 제시하는 미션에 수행하되 참여자 스스로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표5. 2017~2018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미술관 구석구석> 개요

프로그램명	미술관 구석구석		
대 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간	120분
학습주제	미술관이 제시한 미션 수행을 통해 미술관 공간 탐색, 미술관 전시와 작품 이해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의 다양한 공간을 탐색하며 미술관 공간을 이해한다. • 7개 미션을 수행하고 전시와 작품을 이해한다. • 조별 미션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운다.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을 통해 미술관에서 제시한 7개의 미션을 수행하고, 스스로 미술관 공간을 탐색하며 공간을 이해하고, 전시와 작품을 감상한다.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공간을 구석구석 탐색하며 7개의 미션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시실 미션-작품 속 표정과 동작을 따라하라!(써니킴 작가 <교복 입은 소녀들>) ② 전시실 미션-비밀번호를 찾아라!(백현진 작가 <실직폐업이혼부채자살 휴게실>) ③ 전시실 미션-작품 속 단체사진을 찍어라.(박경근 작가 <거울내장: 환유쇼>) ④ 전시실 미션-물품보관함을 열라라!(송상희 작가 <타일작품>) ⑤ 전시실 미션-미술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찾아라. ⑥ 전시실 미션-아트팩랩 미션-아트팩랩을 찾고 삼원색을 활용해 보라색을 만들어라. ⑦ 종친부 미션-종친부 마당을 찾아라.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로 미션수행 • 그룹별로 폴라로이드 사진기와 무전기, 미션카드, 미술관 지도 배포 • 궁금한 사항등은 무전기로 호출하여 흥미 유도 		



도 4. 201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어떤시선-미술관 구석구석> 교육 진행사진

첫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미술’ 작품 감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도가 높았으며 재방문의 의지를 보였다. 또한 미션내용 중 작품감상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점을 아쉬워했으며 미션 수행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작은 성취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여 미션을 수행함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 관련 교육자료 등에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의 텍스트는 삽입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3.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확보

평등, 차이, 자율의 관점에서 논의된 공공성 미술관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공공성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열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영역 외에도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 단체들이 참여할 때 현재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진정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중 신규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민관 협력을 통해 운영되었다.

협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대상 발굴과 이해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치매환자와 가족,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 관련 전문단체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교육대상 선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전과정으로 교사, 기획자,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한 후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대상을 만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18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2와 같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견고한 공공성을 확보하

고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6. 2017~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민간 협력체계 및 내용

사업 구분	협력 체계 구축	협력 방법 및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 교육대상 발굴 • 콘텐츠 개발 전문가 자문 등(2017)
	송파꿈드림지원센터	•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문 → 학생 사전인터뷰, 현장방문 → 교사연수 → 교육 · 시범운영(2017) → 본격 운영(2018)
탈북학생	서울시교육청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력 방안 논의 → 관계자 미술관 현장방문(2018)
장애인 교육	교육부	• 국립특수학교 연계 미술관교육 운영 방안 논의 • 과천관 장애인 교육 협력운영(2018)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장애인 가족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교육프로그램 협력 운영(2017~현재)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문 → 현장 방문 → 장애인예술가와 함께 공동 기획 → 시범운영(2017) → 본격 운영(2018)
치매환자와 가족 교육	주한영국문화원	• 창의적 나이들에 대한 세미나 공동주최(2017) • 한국-영국 시니어 대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조사(2017) • 세미나 공동주최 예정(2018)
	대한치매학회	• MOU체결(2015~) • 치매환자와 가족대상 미술관교육 세미나 공동주최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동 주최(2015~현재) •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미술관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추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으로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련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교육대상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술관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평등관점에서의 공공성 실현에 해당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교육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50대 이후 시니어층, 치매환자와 가족, 특수학급과 장애아동 중심에서 장애가족/장애·비장애 통합 수업 중심으로 전환 등 이에 부합하는 아젠다와 교육대상을 발굴하여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다양한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미술관이 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사회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 설계가 필요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내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소수자 영역(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²²⁾²³⁾ 추진하였다. 다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문화다양성의 화두에 주목한다.

셋째, 협력적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²⁴⁾를 통한 미술관교육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운영하였다. 민관의 협력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보다 열린 교육으로서 미술관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신규 교육대상을 특수계층으로 대상화하지 않는 교육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미술관교육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되, 낙인효과를 주의하여 일반인 대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차별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운영과 문화향유차이를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화소외계층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교육대상의 선정과 선별 혜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보다 세밀한 배려와 고민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차이관점에서의 공공성 실현에 해당된다.

다섯째, 참여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교육프로그램 설계이다. 미술관을 처음 오는 참여자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을 즐기고, 쉽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로서의 공공성 실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언을 바탕으로 박물관학의 변화 흐름 속에서 미술관의 기능 변화에 따른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실천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미술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 공공성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평등, 차이, 자율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일 수 있다. 하지만 미술관교육에 있어

22) 류정아 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2015), 참조.

23) 이동연 외,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2013), 참조.

문화다양성의 영역 분류 모델에서 사회문화(국적, 권역, 종교, 언어), 문화정체성(성다양성, 장애, 세대), 문화예술(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 문화예술, 다국적 문화예술)로 제시한다.

24) Pierre&Peters(2000)는 정도 주도의 거버넌스에서 계층,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Community)라는 다양한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를 제시한다.

서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이 세 가지 조건과 가치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중 평등 실현이야말로 문화기본권으로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책무이다. 문화소외계층 사업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과제로서 미술관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국한되어 국내 미술관교육을 아우르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공공성의 개념이 매우 다차원적인데 반해 다양한 논의와 담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역할을 요구받는 근래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다시금 던지며,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문화소외계층 사업을 박물관학의 변화된 흐름 속에서 평등, 차이, 자율의 가치를 토대로 어떻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본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미술관교육이 사회적 의제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할 때 미술관도 보다 미술관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인 외,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수립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이경아 외, 『평생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 평생교육 협력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이동연 외,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2013
-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 제18권 제3호, 2011.
- 이종태,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연구소』, Vol. 33. No. 3., 2006.
- 양현미 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원금옥,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 『박물관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2017.
- 류정아 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2015.
- 백령 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체계화 연구』, 국립현대미술관·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7.
-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2018-2020)』, 2018.
- 서울문화재단, 「예술() 사회: 변주와 다양성-예술과 서울, 사회,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험들」,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하이라이트(HIGHLIGHT)』, 2018.
- 조장은,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공공성 실천에 대한 연구」-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2017.
- 조현정(2017), 『박물관의 거버넌스로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현성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 최종호, 「한국 박물관 교육의 시원과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 교육 방법론 연구」, 『박물관 교육』, 2017.
- _____, 「박물관 교육과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 지침(2)』,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4.
- 홍해지(2017),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술관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사례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지영·홍해지,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품-미술관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방향」, 『2017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대한치매학회, 2017.

〈인터넷 사이트〉

-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mca.go.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법제처, <http://www.law.go.kr/>
-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Abstract

Direction of Museum Education for Reinforcing the Publicness of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Jiyoung Hwa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With the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art and culture in Korea, the socio-cultural value and roles of art and cultural education are gaining greater importance. Firmly established as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museums are expanding their roles and function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core values of art and cultur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very citizen and further actualize social values at th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Hence, the public nature and social roles of art and culture are being spotlighted, and related knowledge is spreading.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museum education in support of a “museum for all” should seek diverse way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 to culture and enhance the publicness of museums, beyond expanding simply the opportunities for the appreciation of culture.

This study reexamines the elements of publicness in education and proposes strategies for museum education to pursue the creation of “museums for all”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museum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ir education under the changing landscape of museology.

The requirements for publicness in education have long been discussed within the field of education studies. Among the required elements suggested within the existing scholarship, the pursuit of equality, difference, and autonomy within a community are drawing particular attention now that the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seums are growing in importance. Realizing equality is one of the core social responsibilities of museum education that supports the basic right to culture, and projects for culturally disadvantaged people allow museums to pursu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 guarantee publicness.

In this sense, the roles of museum education programs as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museums should be reexamin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museum education project for improved accessibility of culture,” implemented by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following its reorganization of education programs in 2017. In the hope of helping museums to fulfil their social role through a refinement of museum education, this article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create “museums for all” that embody the publicness of museums.

First, museums should discover new culturally underprivileged targets for education programs and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in daily life. They should continuously develop an agenda in support of such groups. Through these efforts to abolish cultural dead zones and create museums for all, museums can realize publicness in terms of equality.

Second, as discussions over cultural diversity are growing increasingly active in Korean society, it has become necessary to open museums for all in terms of cultural diversity. The MMCA reorganized its museum education programs to address minority groups (e.g., people with disabilities, North Korean defectors, and multi-cultural immigrants). Reflecting the classifications in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MCA turned the focus of its education to cultural diversity to meet the demand of a time when diversity has become a major issue.

Third, museums should actively foster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experts to operate education programs through new cooperative governance. The MMCA has been implementing projects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exper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useums can guarantee publicness and lay a foundation for a more open education.

Fourth, museum education should not target only specific groups in new programs. The MMCA analyzed the dead zones in its museum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rying to avoid any labelling effect, it developed non-discriminatory programs in which any ordinary people can participate. Rather than establishing exclusive special programs, museums should host programs that are open to anyone and develop content that considers different methods of opera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unique conditions for enjoying culture. Projects for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face difficulties when selecting participants since the benefits are provided only to a selected group of people. Therefore, projects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careful consideration to realize the publicness of museums in terms of difference.

Fifth, museum education should design programs for self-directed learning. Since a good number of participants have little experience with museum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understand and enjoy art independently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thereby realizing the publicness of museums in terms of autonomy.

Constant efforts are being made to reinforce the publicness of museums and actively respond to a changing social agenda. Equality, difference, and autonomy-all requirements for the publicness of education-may already be well-known concepts. However, museum education should ensure that these three requirements and their value are not overlooked. Projects for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clas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since they allow museum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chieve publicness. While projects for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have been conducted at public museums and/or art museums over the years, this article questions how these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realizing the publicness of museums based on the values of equality, difference, and autonomy under the shifting landscape of museolog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offer opportunities to seek detailed methods for implementing such projects. Now is the time to reconsider and discuss ways to achieve the publicness of museum education while reflecting the evolving functions of museums under the altered landscape of museology. Above all, museums will be able to duly play their role as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realizing the values of museum education only when they actively accept and reflect the agenda presented by society.

Keywords: Art museum, Museum education, Publicness of education, Cultural accessibility, Culturally disadvantaged class